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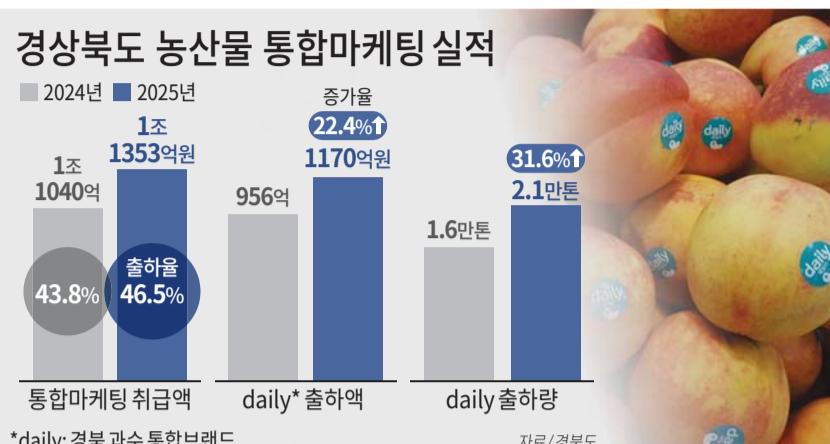
경북도, 20개 시군 '통합마케팅'… 농산물 판매 1.1조 성과

공동출하·판매로 유통 효율 개선
'daily' 매출 1170억… 사상 최대
올해 16개 사업 860억 예산 투입

경북도가 주진해 온 농산물 통합마케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산지 유통구조 대전환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한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농산물 취급액은 1조 1353억을 기록했다. 이는 개별 농가 중심의 분산 출하 방식에서 벗어나 산지 물량을 통합·조직화해 시장 협상력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daily는 전년 대비 22.4% 증가한 1170억의 매출을 올리며 브랜드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출하량도 전년 대비 31.6% 늘어나며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다.



주도했고, 사과와 포도 등 주요 품목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청송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등 주요 주산지가 daily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결집해 산지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점도 매출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경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유통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통합마케팅 관련 사업비 98억 원을 포함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과 공동선별 지원 등 유통 전반 16개 사업에 총 860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통합마케팅과 daily 브랜드의 성과는 농업 인과 유통 조직이 통합의 가치에 공감하고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경남도, '농정 대전환' 본격 추진

밀양 일원에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달기 등 주력 수출품종 경쟁력 강화

경상남도는 27일 스마트 농업 중심의 미래 농업 전환과 농업인 소득 안정 등 농업 분야 주요 시책을 밝혔다.

도는 2026년을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청년 중심 스마트 농업 확산과 구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추진한다. 딸기·파프리카·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 수출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단지를 고도화하고 선별·절다운 유통 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스마트 농업단지가 조성된다. 국비 89억 원을 투입해 밀양시 일원에 10ha 규모로 만들어지며 청년농이 10~30년간 농지를 임차한 뒤 분할 상환으로 소유권을 받는 선임대-후분양 방식이다.

영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

터 유치도 추진한다. 도는 상반기 타당성 조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 생산부터 배송까지 아우르는 거점 물류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비 절감과 공급 안정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도 본격화한다. 총사업비 463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문산읍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조성하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된다. 1인 농어가는 연 60만 원, 2인 농어가는 총 70만 원을 받게 되며 오는 3월 신청 후 6월 중 지급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돼 도내 4개 산단에서 13만 5000식을 지원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청년정책 1871억 예산 투입

일자리·주거 등 5개 분야 96개 사업

울산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6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김두겸 시장과 위원회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 계획 심의·의결과 함께 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청년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시는 청년들의 고민과 제안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 정책은 '청년이 머물며 성장하는 AI·산업수도 울산'을 비전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9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전년보다 155억 원 늘어난 1871억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분야에는 83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 재직자 수퍼패스 이용권, 창업의 꿈 울산이 이뤄 드림, 울산 자영

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등 신규 사업으로 일 경험부터 취업,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 분야는 603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범서굴화 청년 특화주택 건립, 온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삼산동·달동 등 6개소에서 청년주택 150호가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1011억 원을 들여 20개 사업을 펼친다. 이전공공기관 취업 이카데미, AX 시대 청년 리더십 프로젝트, 유-미디어 팩토리 등 신규 사업으로 울산 전략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키운다.

복지·문화 분야는 26개 사업에 164억 원, 참여·권리 분야는 17개 사업에 10억 원이 배정됐다. 슬기로운 청년 경제 교육, 울산형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부산시, 와상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편도 기준 1회 이용요금 5000원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교통수단에 이동식 간이 침대 설비를 갖춘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표준형 훌체어 탑승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했던 보행상 중증 와상 장애인들이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를 받으려 갈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 등록이 된 보행상 중증 와상 장애인이다. 편도 기준 1회 이용 요금은 5000원이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시역 내 병원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전문 교육을 받은 복지 매니저와 보조 인력이 동승해 안전한 이동을 책임진다.



두리발 특수차량 내부 모습.

▶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포항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포항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68대와 수소 버스 20대 등 모두 88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대폭 상향한 보조금 수준을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수소 승용차 디올 뉴 네쏘 대당 3750만 원, 수소 고상버스 유니버스 대당 4억 1000만 원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주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주시는 예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의미 중심의 소규모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참여자를 오는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의 '저출생 부부 타파 4대 문화운동'의 하나로, 형식과 비용 중심의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부부 중심의 간소하고 따뜻한 예식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결혼 예정인 부부 가운데 결혼식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신혼부부로, 예식은 양가 하객 합산 100명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관내 펜션과 카페, 종교시설 등 소규모 결혼식 취지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열려야 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김해시

대피시설 길안내 웹페이지 구축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난 대피시설 길안내 웹페이지를 자체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명구조함, 자동심장충격기, 비상소화장치, 각종 대피소 등 총 8종 1000개소 이상의 시설물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 내비와 연동해 해당 시설물까지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갖췄다.

시가 제공하는 링크나 QR 코드를 통해서 재난 위급 상황에 필요한 지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창녕군

17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

창녕군이 기후 변화에 따른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총 2119억 원 규모의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4개 분야 17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7개 지구(22㎢)에 1495억 원, 도시하천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2개 지구(1.2㎢)에 174억 원, 소하천 및 비법정 정비 사업 6개 지구(11㎢)에 313억 원, 국가하천 환경 정비 2개 지구에 136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해남군, '농촌유학' 신규사업 확대

지역자원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해남군은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지역 정주형 교육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15명 수준이던 해남군 농촌 유학생 수는 2025년 63명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현재 7개 학교에서 초등학생 46명, 중학생 17명이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 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17개 시군

농촌유학 가구 및 학생에게는 월 40만 원의 농촌유학 경비가 지원되며, 특히 해남군은 농촌유학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상거주가 가능한 4개 소를 포함해 10개소의 가족체류시설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26년 신규사업도 확대한다. 2월부터는 농촌유학 신축 주택 거주자에게도 유학 6개월 이상 유지 시 유학경비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산면에 가족체류시설 4동을 신축한다. 농촌유학 우수 학교 2개소를 육성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이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체류시설과 경비 지원을 포함한 농촌유학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편도 기준 1회 이용요금 5000원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교통수단에 이동식 간이 침대 설비를 갖춘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표준형 훌체어 탑승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했던 보행상 중증 와상 장애인들이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를 받으려 갈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 등록이 된 보행상 중증 와상 장애인이다. 편도 기준 1회 이용 요금은 5000원이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시역 내 병원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전문 교육을 받은 복지 매니저와 보조 인력이 동승해 안전한 이동을 책임진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